

“가만 있어도 잔인한 인물 표현하려 했죠”

영화 ‘다만 악...’ 레이 역 이정재 사냥감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외형에 특히 신경 썼어요”

“가만히 있을 때도 잔인해 보이는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인상만 쫓고 있고 있어도 섬뜩한 사람, 그게 레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우 이정재(48)가 강렬한 악역으로 돌아왔다. 다음 달 5일 개봉하는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레이를 통해서다.

레이는 자신의 형제를 죽인 청부살인업자 인남(황정민 분)을 미친 듯이 추격하는 인물. ‘하드보일드 액션’을 표방하는 이 영화는 대부분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인남과 레이의 액션 장면이다.

목 전체를 뒤덮은 문신과 화려한 액세서리, 강렬한 의상은 레이의 무자비함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동안 이정재가 역역을 맡았던 영화는 전부 성공했을 정도로 악역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배우지만, 레이는 또 다른 결의 인물이다.

30일 종로구 소격동에서 만난 이정재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악역 캐릭터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웃었다.

이어 “초기 목표는 인남을 압박해서 관객이 스틸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며 “황정민이라는 거대한 배우를 어느 정도까지

압박할 수 있을까가 내 과제였다”고 말했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보다는 레이를 이미지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레이가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신경을 썼다. 그는 형제의 장례식장에서 흰 코트를 펼쳐 걸리며 관객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관객들이 인물의 첫 등장에서부터 몰입이 돼야 하니까 첫 장면은 중요하죠. 원래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클럽 장면이 레이의 첫 등장이었었는데, 촬영이 3분의 1 정도 진행됐을 때 그 장면을 빼고 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장면이나 나온다고 그럴 뻔하고 펼쳐 뒀었는데, 결국 (클럽 장면 삭제) 이야기의 스피드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는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도 고민했는데, 레이의 웬지 장례식장 복장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정재가 가장 집중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잔인한 레이의 모습”이었다.

“다이어트도 심하게 하고, 장례식장 장면 찍을 때는 그 전날부터 물도 안 마셨어요. 최대한 피곤한 상태로, 감정을 다 쏟고 온 모습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그 모습을 잘 보여드리면 레이가 두 시간 동안 인남을 쫓아가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외어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레이의 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형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그가 손에 들고 다니는 아이스 커피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 보여주는 여유를 한껏 드러낸다.

“레이의 과거 이야기가 없어도 사냥감을 쫓는 맹수와도 같은 레이의 행동과 이미지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스타일링뿐 아니라 액션 장면을 찍을 때도 어떤 무기를 주로 사용하고 그 무기를 활용하는 동작까지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썼죠. 커피의 경우는 무조건 얼음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얼음이 내는 ‘달그락’ 하는 소리도 연기의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 죽이러 온 사람이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걸 마시고 있는 게 오히려 잔인

해 보이잖아요.”

그는 “액션 연기에서는 주먹을 뺀는 각도, 발 스텝 위주로 신경 썼다”며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 그럴 힘은 없다”고 웃었다.

이정재는 영화 첩보 액션 영화 ‘헌트’로 연출과 제작, 각색에 도전했다. 영화는 내년 초 촬영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연출작에 대해 “지난 8~9년 동안 시나리오도 쓰고 시나리오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쳤다. 그 중 하나가 이번 시나리오”라며 “촬영에 들어갈 정도까지 수정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정재

연쇄살인마로 변신한 이준기... ‘악의 꽃’ 3.4% 출발

tvN 새 드라마...안방극장 장르극 전성기 열 지 주목

딸에게 밥을 먹여주는 다정한 아버지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목을 조르는 잔혹한 살인마까지.

배우 이준기의 이중적인 모습이 돋보인 tvN 새 드라마 ‘악의 꽃’이 3%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경 tvN에서 방송된 ‘악의 꽃’ 시청률은 3.4%로 집계됐다.

직전에 방송된 ‘오 마이 베이비’ 1회 시청률(2.0%)보다 높고, tvN이 밤 11시 30분 시대를 옮기고 처음 방송한 ‘메모리스트’(3.3%)와 비슷한 기록이다.

여타 장르극이 1회부터 메인 서사에 곧장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악의 꽃’은 연쇄살인마로 의심되는 백희성(이준기 분)의 아내이자 형사인 차지연(문채원)이 어느 부부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준기

남편이 아내에게 독약을 몰래 먹인 사건을 해결하고 차 형사의 동료가 “마누라가 내 입에 독을 넣어도 내가 그걸 깨내서 내 눈으로 확인하느니 그냥 먹고 죽고 말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14년간 사랑해’는 남편이 연쇄살인마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드라마의 주제를 함축한다.

이러한 방식에 일부 시청자들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준기가 연기하는 백희성 캐릭터가 가진 비밀은 앞으로 극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백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기자 김무진(서현우)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끝내 목을 조르고 마는 장면에선 강렬한 서스펜스로 몰입감을 높였다.

최근 안방극장에서 장르극이 부진한 가운데 JTBC ‘모범형사’, 방송 예정인 tvN ‘비밀의 숲’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장르극의 전성기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날 방송한 다른 채널의 수목드라마들은 모두 시청률 2~3%대를 기록했다.

MBC TV ‘십시일반’이 3.0%~3.9%로 가장 높았고, KBS 2TV ‘출사표’는 2.7%~3.3%, JTBC ‘우리, 사랑했을까?’는 2.1%(유료 가구)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MBC ‘아시안 탑밴드’ 대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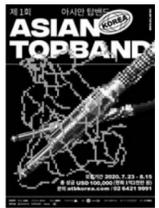
광주MBC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8개국에 참여하는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제1회 아시안 탑밴드’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

참가자는 오는 8월 15일까지 모집하며 2인 이상의 밴드 혹은 팀이라면 장르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제1회 아시안 탑밴드’는 한국을 비롯

한 아시아 8개국에 참여하는 국제 공동제작 밴드 경연 프로그램으로 실력 있는 아시아 밴드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을 세계 음악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제1회 아시안 탑밴드’는 제작사인 광주 MBC를 비롯해 중국 저장방송그룹, 인도네시아 RTV, 몽골 MGL과 EDUTV, 미얀마 MRTV 4와



MandalayFM, 필리핀 TBN ASIA와 CTS필리핀, 우즈베키스탄 MILLIY TV, 베트남 HTV 등 아시아 8개국 15개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TBN 광주교통방송, 다큐 ‘성현의 노래’ 방송

TBN 광주교통방송(사장 박기수)은 지난 28일 오전 10시~10시55분 TBN 다큐스페셜 ‘성현의 노래’ (연출 이진아, 구성 광병찬·유재창, 내레이션 윤도현 <사진>)을 방송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해 선보이는 지역사랑다큐멘터리의 일환으로 나주 남평 출신의 작곡가 안성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안성

현이 남긴 ‘엄마야 누나야’, ‘부동산’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인터뷰를 통해 전달해 청취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제작을 맡은 이진아 PD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속에 잊혀진 예술가의 기록과 가치를 복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안성현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제작 소



감을 밝혔다. TBN광주교통방송 주파수는 FM 97.3 Mhz (전남 동부권 103.5 Mhz)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 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행운공인증개사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안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원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 각종 찜 요리, 떡볶이, 떡갈비, 떡볶이, 떡갈비, 떡볶이, 떡갈비 ☎ 062)229-1008, 010-8572-0999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신한은행 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 앞) 심전대방탕, 생화방,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콜릿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사랑방공인증개사사무소 북구 안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 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 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 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 앞)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 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 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두면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만 복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